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都日報 joongdo.co.kr

고창군, 예비 귀농귀촌인 체험학교 4회차 운영

전경열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3-10-22 11:43



전북 고창군이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귀농체험학교를 4회차 운영했다. /고창군 제공

전북 고창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35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귀농체험학교 4회차를 진행했다.

첫날은 고창군 농업 현황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귀농 우수농가인 고창 화산마을 홍성만 농가를 찾아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귀농 이야기를 들었다.

둘째 날은 상하면 토굴발효농장에서 귀농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고추장 만들기 체험과 복분자 코디얼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마지막 날은 귀농 우수농가 보니타 허브농원에서 '허브와 치유' 강의를 들으며 허브삼푸 만들기 체험을 끝으로 2박 3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은 또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귀농·귀촌 종합 플랫폼인 '그린대로'에서 모집한 고창군을 방문하고 싶은 은퇴예정자 10명을 대상으로 고창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체류형 센터 견학, 귀농·귀촌 정책 설명을 진행했다.

현행열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창으로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도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프린트

취소